

韓美 외교 접촉 반복적 취소...트럼프의 의도적 밀어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반면, 한국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외교적 배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잇단 외교 채널이 무산되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달 1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23일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은 줄줄이 타결

◆협상 테이블에 가지도 못해

상황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관세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실상 지연 전략을 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측과의 통상 신뢰와 협상 주도권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외교 공백은 이어졌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간 정상회담이 추진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이어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두 정상 간 직접적인 접촉 기회는 연이어 사라졌다.

미국 국무부와외의 고위급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앤서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7월 8~9일 방한 일정으로 한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했지만, 미국 측은 불과 방한 닷새 전 '현지 정세'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같은 시기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본 방문이 확정되면서 한국 경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마저도 막판 모두 취소됐다. 가장 큰 타격은 25일 예정됐던 한미

트럼프·이재명 회담 무산

·루비오 국무 방한 취소

·베선트 재무 경유 취소

·2+2 통상 협의 취소

日·中은 외교 우선 순위 놓고韓엔 메시지 없어 존재 희미美 대등한 교역 파트너 아닌 전략적 활용 대상으로 여겨

간 '2+2 통상 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협상 직전인 24일 "미 재무장관의 일정 변경으로 협상이 연기됐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협상 일정을 거부한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해당 협상은 상호관세율 조정을 위한 마지막 창구로 평가받던 자리였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갑작스런 취소 통보를 받았다. 미국이 회담을 미루면서 차기 회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상당한 '결례'로 보고 있다.

◆일부러 피하는 '코리아 패싱'

이 같은 일정 연쇄 무산은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닌, 미국이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외교 및 통상 협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규모 투자와 전략물자 구매 등을 직접 챙긴 것과 달리, 한국에는 아무런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무산은 물론 주한 미국대사 공석이 길어지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외교 접촉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외교 우선 순위로 놓고 있고, 한국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교역 파트너가 아닌, 후순위 동맹 혹은 전략적 활용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 전략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임박한 만큼, 정부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다면 외교적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경석 기자

정부 관세 담판, 1천억\$ 투자 보따리 푼다

(137조원)

계획 그대로美에 곧 제안할 예정 日처럼 투자 펀드 조성 방안 검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미국 정부 측에 곧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통상 대표단은 애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회의에서 이 같은 금액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은 스코트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취소됐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

내 기업과 접촉해 가능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 금액은 국내 기업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 15%로 낮췄다. 일본 투자 금액에 비해서 적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통상환경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 상호관세를 낮추는 데 일조한 만큼 한국도 경제 규모에 맞는 투자 금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이미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대미 투자·글로벌 통상 공감대 李대통령, 재계 총수들에 SOS

정의선·구광모·이재용 연쇄 회동

정부가 당면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재무·통상 부처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되는 등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재용 삼성전

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한미통상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신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연쇄 회동은 임기 초반 통상적인 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대기업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가뜰이나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를 벗어날 동력조차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그들의 탄탄한 미국 내 그룹망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면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규정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로 상반기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며 "정부 정책 실행 속도와 한미 통상협상 결과가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지는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ANDONG WATER FESTA 2025

2025안동

水

수페스타

07.26.토 ~ 08.03.일

안동 낙동강변(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주최·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